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임파워먼트 연계 경로 분석*

- 경상북도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

The Path Analysis of Empowerment Linkage in the Saemaul Undong Globalization Projects focusing on the African Saemaul Pilot Village Project of Gyeongsangbuk-do Province

주 낙 영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Abstract

Nak-young Joo

This paper made an empirical analysis and assessment on the Saemaul Undong Globalization Projct based on the empowerment approach to identify related issues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is purpose, it used a modified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e World Bank Empowerment Team's Agency-Opportunity Structure Model. The framework consists of six elements(variables) including agency, opportunity structure, interventions, individual empowerment, community empowerment, and outcomes, and it shows the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eight Pilot Village Projects undertaken by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in three African countries(Ethiopia, Rwanda, and Tanzania) since 2010. Using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villagers, this paper conducted structure equation model(SEM) analys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and through what paths empowerment variables affect the development outcomes. The result shows that agency and community empowerment a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outcomes of the project and that even though the villagers lack agency, their empowerment and the project outcomes can be enhanced through well-managed implementation of the interventions.

주 제 어: 새마을운동 세계화, 원조효과성, 임파워먼트. 행위능력, 기회구조

Keywords: Saemaul Undong Globalization, Aid Effectiveness. Empowerment, Agency, Opportunity Structure

---

* 이 논문은 주낙영(2015)의 박사학위 논문 「임파워먼트가 인식차원의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

I. 서 론

최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전수요청에 부응하여 많은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해외전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크게 한계론(신중론)과 긍정론(옹호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2] 한계론은 새마을운동에는 197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맥락이 가지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이태주,2013; 윤석원, 2014; 이진우, 2015). 그러나 대다수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 혜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당연히 적극적인 전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옹호적 입장을 취한다.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초기의 거시적, 규범적, 당위론적 연구에서 벗어나 실증적, 경험적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평가보고서 등 2차 자료에 기초한 간접 연구로서 현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실증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내용적으로는 2010년 OECD/DAC 가입을 전후하여 새마을운동을 ODA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사회적 자본(오남현·최외출, 2009; 오남현, 2012; 김성규, 2013; 이현정, 2014), 거버넌스(소진광, 2007; 최영출, 2008; 이종수, 2010),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소진광·김선희, 2011; 임경수, 2012), 권리기반 접근(손혁상·장지순, 2011), 역량강화(임한성, 2013) 등 지역사회개발의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보편적인 지역사회 개발모델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이해되고 통용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의 오랜 주제인 '임파워먼트' 개념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운동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고, 있더라도 개념적 요소를 잠시 언급하는 정도였다. 사실 임파워먼트 접근법은 1990년대 중반 세계은행(World Bank)의 빈곤감축 전략으로 채택되어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에 광범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구미 각국의 원조기구들과 국제 NGO 활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에서 '임파워먼트 접근법'의 관점에서 새마을운동 및 그 세계화사업을 분석, 연구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

1) 새마을운동 해외전수사업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KOICA),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새마을운동중앙회, 경상북도), 해외 새마을운동사업, 국제 새마을운동사업(새마을운동중앙회), 지구촌 새마을운동사업,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새마을운동 해외전수사업,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 국제 농촌개발시범마을 컨설팅사업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고, 그 사업의 내용도 단순한 초청연수에서부터 농업기술전수, 마을단위 시범 프로젝트, 대규모 농촌개발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2)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담론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주낙영(2015)을 참조할 것.

대목이고 학문적 공백이 아닐까 생각된다.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근대화시키고 삶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일깨워 주는 등 정신개혁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동의한다. 향후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새마을운동의 이런 임파워먼트적 성격이라 생각한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도록 의지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핵심인 것이다.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접근법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상북도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주민들의 임파워먼트 향상과 사업성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연계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표준화와 그 보편적 타당성 획득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임파워먼트 개념이 국제개발협력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이론적, 제도적인 배경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 제Ⅲ장에서는 연구분석틀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검정할 기본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델(SEM)에 의거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가설검정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 결론으로 그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제도적 고찰

1.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특성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에 대해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임파워먼트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Zimmerman, et al., 1992; Perkins and Zimmerman, 1995: 570에서 재인용),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것"(Rappaport et al., 1987: 121)을 의미한다.

Page와 Czuba(1999: 485-491)는 모든 임파워먼트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로 다차원적, 사회적, 과정적 특성을 들었다. 임파워먼트가 다차원적(multi- dimentional)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경제적, 기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개인, 조직,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임파워먼트가 사회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누군가가 임파워 되었다 또는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준거집단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Narayan ed., 2005: 22-23). 임파워먼트가 과정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연속선상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과거의 상태에서 보다 큰 선택의 자유라든가, 더 강한 영향력의 행사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행하는 변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적 특성에 착안하여 Kabeer(2001: 18)는 임파워먼트를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임파워먼트의 기타 측면은 특수한 맥락과 차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특성은 보편적인 것이다.

임파워먼트 이론은 과정 뿐 아니라 결과도 다루는데, 그것은 행동(actions), 활동(activities), 구조(structures)는 임파워링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의 결과로서 다양한 수준의 임파워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Zimmerman, 1993). 다시 말해 임파워먼트는 향상될 수 있고 기대한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결과(outcome)이기도 하다.[3] 임파워먼트의 과정이나 결과는 공히 외형적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든 관계자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단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임파워먼트 이론을 분명하게 정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Perkins and Zimmerman, 1995). 임파워먼트는 또한 개인, 조직,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수준(level)에서 일어난다.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조직적 임파워먼트는 집단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한다(Wallerstein, 1992: 197-205). 그런데 이 세 가지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임파워된 지역사회에는 임파워된 조직이 있고, 조직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그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에 좌우된다. 이 세 가지 수준은 상호의존적이지만 각각의 목적은 상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천을 방해하기도 한다(Laverack and Wallerstein, 2001: 179-180).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과 같이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임파워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Wilson, 1996).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가난이나 무기력을 그들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보다는 개인적 변화가 지역사회의 연계성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교가 되도록 해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이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존중,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비전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을 둔 협동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변화를 통합하는 노력이 바로 임파워먼트 과정이다(Kasmell, 2011: 41). 종래 많은 연구들이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집단적 내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분리하

---

3) 학문적으로는 결과로서의 임파워먼트보다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특성이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 있다(Parpart et al., 2003).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파워먼트 연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ur, 2006).

여 이해해 온 경향이 있으나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언제나 지역사회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곧 개인적 임파워먼트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뜻한다는 점에서 생태론적 관점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Lord & Hutchson, 1993: 20).

2.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임파워먼트 접근법

임파워먼트 개념은 최근 많은 국제개발협력 기구와 정부기관들 사이에 개발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Zen, 2007). 개발도상국의 많은 빈곤감축 전략보고서(PRSP)는 빈번히 그 개발목표로 임파워먼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임파워먼트를 의미하는지 분석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한 조직 안에서조차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는 2002년 세계은행의 「임파워먼트와 빈곤감축: 자료집」이다(Narayan ed. 2002). 이에 앞서 발간된 「세계개발보고서 2000/2001」는 빈곤의 다차원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World Bank 2002). 또한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발간된 「세계은행 전략적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지원해야 할 우선분야로 (a) 수원국의 투자, 고용, 성장 분위기 조성과 (b) 빈곤층 임파워먼트 및 그들의 자산에 대한 투자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임파워먼트 접근법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Friedman(1992: 63-66)에 따르면 임파워먼트 모델은 1970년대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에 의해 대안적 발전론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기본욕구접근법(basic human needs approach: BHN)의 변형으로서 1990년대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한다. Luttrell 등(2009)은 1980년대 이래 임파워먼트는 이미 많은 서구 국제개발기구들의 임무수행에 중심테마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Cornwall과 Brock(2005)도 임파워먼트는 빈곤감축(poverty reduction), 참여(participation)라는 말과 함께 최근 국제개발협력계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3대 유행어(buzzwords)중 하나가 되었으며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근대화론에 따른 기존의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빈곤을 감축시키며 다른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잠재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 이외에 다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성장, 고용증대 없는 성장, 발언권 없는(voiceless) 성장(민주주의의 약화), 뿌리 없는 성장(문화정체성의 상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성장(미래자원의 착취)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취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개발개념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그 외연을 확대해 오고 있다. 즉,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 인간중심적인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개발의 목적은 단순히 수입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창조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이금순 등. 2008: 68-72)). 그 대표적인 흐름이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기조로 당당히 등장한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의 개념이다. 양 개념에서 임파워먼트는 공히 그 핵심적 수단 내지 가치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역설적이긴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시장 내지 민간중심의 신자유주의 사조도 임파워먼트 접근법의 부상에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초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이 재정적자와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구조조정 및 안정화(structural adjustment and stabilization) 정책을 강요받게 되었고,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 보수성향의 정부도 민영화와 정부 규제완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 개발전략으로 중앙국가의 활동과 정책결정보다는 분권화된 접근이 선호되었고, 지역의 참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NGOs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책결정의 권한이 지역단위로 이양되고 지역사회와 밀착한 NGO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결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임파워먼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이금순 등, 2008). 특히 NGO들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을 받아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분석틀의 제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는 Narayan 등(2002)이 개발한 '제도-자산-능력(Institutions-Assets-Capabilities) 모델'과 세계은행 임파워먼트 팀의 Alsop 등(2006)이 개발한 '행위능력-기회구조(Agency-Opportunity Structure) 모델',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사회개발센터(SCDC)에서 개발한 ABCD(Achieving Better Community Development) 모델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모델마다 특성과 장단점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Alsop 등의 '행위능력-기회구조 모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분석틀로 사용하기로 한다.[5]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능력, 기회구조, 임파워먼

---

4) 각 모델별 특성과 장단점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낙영(2015)을 참조할 것.

5) 이 분석틀의 기존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행위능력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였고, 임파워먼트를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로 구분하여 양자의 인과관계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수

트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동 모델의 것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델은 행위능력, 기회구조,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사업성과 등 중요 개념변수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개념변수는 각각 하위변수들로 구성되며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성과를 결정한다.[6] 이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시범마을 주민의 개인적 및 집단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형성된 임파워먼트가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시범마을에 주어진 행위능력과 기회구조 하에서 외부개입이 이루어지면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다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과구조를 설정하였다. 또한, 행위능력, 기회구조, 개인적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새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를 통해 앞으로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계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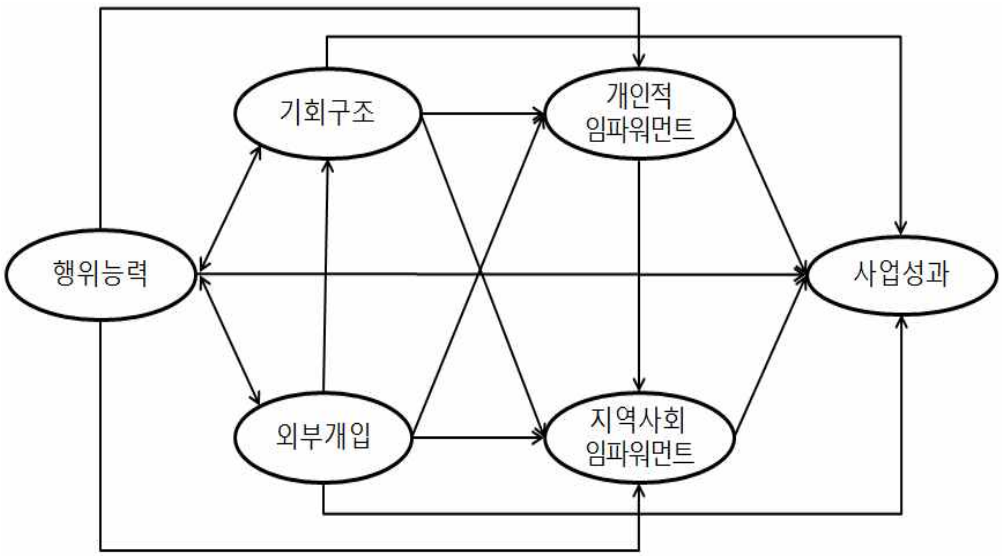
여기서 먼저 임파워먼트란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바람직한 행동이나 결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제고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Alsop et al., 2006: 10). 임파워먼트는 크게 개인적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로 구분되는데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의미감(meaning), 유능감(competence),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집단적 소속감(collective belonging), 지역사회 관여(involvement in the community), 지역조직 통제력(control over organization), 지역사회 형성(community building)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Hur, 2006: 532-534). 행위능력(Agency)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목적지향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어떤 대안을 상상하고(envisage) 의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임파워먼트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의 변화라는 과정적 속성을 지니는데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agent)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행위능력이다. 한편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 즉 그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선택과 결정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을 말한다.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개인적 선택을 형성하는 사회적으로 고안된 '게임의 규칙'으로서 여기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 모두를 포함한다. 행위능력을 강화하고 기회구조를 개선하기 위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행위능력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자산과 능력이야말로 임파워먼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Narayan 등의 자산-능력모델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것이며, 본 연구의 대상사업처럼 소규모의 단기적인 사업의 경우 행위능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감안하였다. 그리고 외부개입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외부개입의 추진과정이 각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6) 한편 이들 중심개념 변수 및 하위변수들은'상호 구성적(mutually constituted)'관계라 해도 무방할 만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그 상호작용의 경로도 단선적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나선형 구조의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행위능력과 기회구조, 외부개입은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쌍방향으로 표시하였다.

한 외부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효과적 선택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개발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석틀의 가정이다. 즉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발성과를 향상시키는 수단적 가치도 인정한다.

한편 외부개입은 지역사회에 의도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계획되고 의식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 시범마을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는 외부개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정도를 말하는데 사업목표는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주민의식개혁, 소득인프라 구축, 좋은 거버넌스 구축 등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사업결과에는 단기적 성격의 사업산출물(Outputs)과 장기적 성격의 영향력(Impacts)등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업성과(Outcomes)로 명명하였다.[7)]



〈그림 1〉 연구분석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의 선정

임파워먼트와 그 개념변수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석의 지표나 측정도구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 및 범위에 따른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불가피하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변수를 보여준다.

---

7) 일반적으로 ODA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단기적인 산출물(Output), Output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효과성 의미의 Outcome, 그리고 장기적 의미의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지속가능성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성과'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하위변수

요인		조작적 정의	하위변수	출처
행위능력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 선택을 함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능력과 자산	마을발전에 대한 관심, 사회적 자본(신뢰, 협동, 네트워크), 개인적 자산(학력, 소득, 지위 등	- Narayan ed. (2002, 2005) -소진광·김선희(2011)
기회구조		사람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국가의 정책과 의지, 민주화·분권화 정도,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여성의 사회적 지위, 지배종교 등	- Alsop *et al.* (2006)
외부개입	의식개혁	새마을 정신교육 및 현장학습을 통해 느끼는 의식변화의 정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새마을교육의 유용성, 새마을사업 참여도, 자신감의 배양 등	- 홍기용 등(2013) - 임한성(2010, 2011)
	사업	새마을 시범사업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	정보접근성, 참여용이성, 이익배분 공정성, 마을회관 활용도, 지방정부 지원 정도 등	- 홍기용 등(2013) - 임한성(2010, 2011)
임파워먼트	개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통제력과 영향력이 증진되었다고 느끼는 인식	의미감, 자신감, 자기결단력, 영향력, 효능감, 여성의견 반영도 등	- Hur(2006) - Narayan ed. (2002, 2005)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협동하고 연대하는 등 변화를 이루고자 적극 행동하는 정도	소속감, 마을조직화, 협동심, 적극적 활동, 참여,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등	- Hur(2006) - Narayan ed. (2002, 2005)
사업성과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	주민 만족도, 지속가능성, 발전의지, 확산가능성 등	- 홍기용 등(2013) - 임한성(2010, 2011)

3. 기본가설 설정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분석틀에 의거 임파워먼트 제 구성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가정하고 있는데[8] 본 논문에서 검정할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행위능력은 다른 모든 임파워먼트 구성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기회구조는 다른 모든 임파워먼트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외부개입은 다른 모든 임파워먼트 구성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사업산출물,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단기적 산출물(Outputs)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역사회 임파워먼트가 강화될수록 사업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8) 임파워먼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행위능력과 기회구조들 드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의하지만 양자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들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스위스개발협력단(SDC), 캐나다국제협력단(CIDA), Care International 같은 기구들은 행위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영국국제개발부(DFID), 세계은행 같은 기구는 기회구조를 강조하여 정치제도 등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uttrell et al., 2009: 27).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향상이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등 개발의 성과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많은 경험연구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데 이중 개인적 임파워먼트가 더 중요한지 집단적 임파워먼트가 더 중요한지는 논자에 따라 강조의 차이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주낙영, 2015: 92-94 참조).

4. 분석대상 및 설문조사

본 연구는 경상북도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중 아프리카 3개국 8개 시범마을(에티오피아 3개, 르완다 3개, 탄자니아 2개)을 대상으로 하였다.[9] 이들 마을은 이제 사업기간이 4~5년에 이르러 일부 마을의 경우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시범마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프리카의 빈곤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고 그동안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막대한 원조지원을 했음에도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물질적 지원 위주의 기존의 원조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3개국 5개 마을(에티오피아 2개, 르완다 1개, 탄자니아 2개)은 2014년 말 현재까지 5년간을,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3개 마을(에티오피아 1개, 르완다 2개)은 4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표 2〉 분석대상 시범마을 현황

국가	마을	사업시기	새마을리더(명)*	투입예산(백만 원)**
에티오피아	한도데	2010-2015	23	737
	데베소	2010-2015	26	729
	아둘랄라	2011-2016	19	610
르완다	키가라마	2010-2015	23	665
	무심바	2011-2016	18	566
	기호궤	2011-2016	21	575
탄자니아	키보콰	2010-2015	26	685
	팡가웨	2010-2015	25	637

* 2014년까지 파견된 연인원
** 경상북도의 투자 사업비

경상북도가 이들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시범사업은 표준 메뉴얼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세부적으로는 각 마을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마을별로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시범사업은 크게 새마을운동 인프라구축, 주거환경개선, 주민소득증대, 의식개혁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970년대 한국의 농

9) 이 사업은 해외 현지마을에서 자원봉사할 새마을리더를 선발하여 마을당 4~6명이 한 팀을 이뤄 함께 파견하기 때문에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국제 농촌개발협력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서, 새마을리더의 사업과 활동은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모델의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양자의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있는 실험적인 대안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홍기용 외, 2013: 44). 동 사업은 지난 2010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등 3개국 5개 마을로 시작되어 2014년 말 현재 아시아 4개국 9개 마을(필리핀 3개, 베트남 3개, 우즈베키스탄 1개, 스리랑카 2개)과 아프리카 4개국 15개 마을(에티오피아 5개, 탄자니아 4개, 르완다 4개, 세네갈 2개) 등 총 8개국 24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촌 새마을운동 내용과 유사하다.

마을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현지어(에티오피아: 오르미아어, 르완다: 킨야르완다어,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로 각각 번역하여 2014년 11월 말~12월 초에 시범마을에서 직접 실시하였다. 현지의 KOICA 관리요원과 새마을리더 봉사단원을 조사자로 교육시켜 실시하였는데 상당수 주민이 현지어조차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자들이어서 조사자가 통역을 거쳐 일일이 설문내용을 읽어주고 응답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10] 각 마을별로 70부씩 총 560부를 배부한 후 전량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25부를 제외한 53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마을								계 (명/%)
		A	B	C	D	E	F	G	H	
성별	남	55	49	30	28	33	33	43	33	304(56.8)
	여	13	19	32	40	36	36	21	34	231(43.2)
	계	68	68	62	68	69	69	64	67	535(100.0)
연령	20세 이하	22	12	7	0	0	6	10	6	63(11.8)
	21~30세	23	22	28	20	18	13	19	11	154(28.8)
	31~40세	20	13	15	25	19	24	19	20	155(29.0)
	41~50세	3	16	9	13	13	17	8	19	98(18.3)
	50세 이상	0	5	3	10	19	9	8	11	65(12.1)
	계	68	68	62	68	69	69	64	67	535(100.0)
학력	무학	0	11	9	3	7	6	6	17	59(11.0)
	초졸	31	17	28	38	41	38	50	39	282(52.7)
	중졸	22	9	4	20	16	17	6	10	104(19.4)
	고졸	9	26	15	7	3	3	1	0	64(12.0)
	대학 이상	6	5	6	0	2	5	1	1	26(4.9)
	계	68	68	62	68	69	69	64	67	535(100.0)
거주 기간	0~9년	0	3	1	16	18	7	4	4	53(9.9)
	10~19년	23	15	16	20	7	10	19	10	120(22.4)
	20~29년	30	15	23	17	7	13	23	17	145(27.1)
	30년 이상	15	35	22	15	37	39	18	36	217(40.6)
	계	68	68	62	68	69	69	64	67	535(100.0)
직책	없음	43	16	15	42	33	38	22	26	235(43.9)
	마을대표	1	5	8	6	9	8	8	7	52(9.7)
	조직책임자	1	11	2	0	7	3	2	3	29(5.4)
	새마을지도자	1	2	3	7	7	7	10	9	46(8.6)
	새마을회원	22	20	27	4	11	7	22	12	125(23.4)
	기타	0	14	7	9	2	6	0	10	48(9.0)
	계	68	68	62	68	69	69	64	67	535(100.0)

A: 한도데, B: 데베소, C: 아둘랄라, D: 키가라마, E: 무심바, F: 기호궤, G: 키보콰, H: 팡가웨

10) 때문에 설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조사자를 의식한 답변의 관대화 경향 등 응답의 신뢰성 문제가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Statistics 22와 Amos 21.0을 사용하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고 모델 적합도 검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명된 수정모델을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델에 의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임파워먼트 구성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과 각 요인들을 연결하는 경로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이론적 논의 및 기타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Ⅳ. 경상북도 시범마을 사업의 임파워먼트 경로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개념타당성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EFA)는 이론을 만들 때,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이론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도구이다(노경섭, 2014: 288).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을 임파워먼트 접근법에 따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우선 각 구성 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 가운데 적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항목(Q10, Q26)을 제거하였다.[11] 분석결과 임파워먼트 요인의 설명 변수로 선택된 문항들의 Kaiser-Meyer-Olkin(KMO) 측도는 .913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 .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KMO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KMO) 측도		.9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425.324
	자유도	351
	유의확률	.000

2) 요인의 확인

임파워먼트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요인에 포함된 관측변수들을 주성분 분석법에 의한 사각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6개의 요인으

11) Q10(새마을지도자의 한국연수 후 변화정도)과 Q26(새마을운동의 확산가능성)은 요인적재치가 0.4 미만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 0.4 이상을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로 묶였다. 이들 요인들은 당초 이론적으로 구성한 변수 묶음과는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구성개념의 특성을 잘 반영한 관측변수들이라 판단되어 잠재변수(요인)의 이름을 각각 행위능력,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사업산출물(outputs), 사업성과라 명명하였다.[12] 이들 6개 요인의 전체 누적 설명량은 60%에 조금 못 미치지만(57.576%) 요인분석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서 분류된 6개 요인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6개 요인 모두 공유치, 알파계수(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값이 기준치인 0.4와 0.6 이상에 부합하고 있어 자료로서 충분히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13]

2. 확인적 요인분석

1)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수들 사이의 관계 패턴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x2$,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였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부분의 판별 지수에서 적합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경로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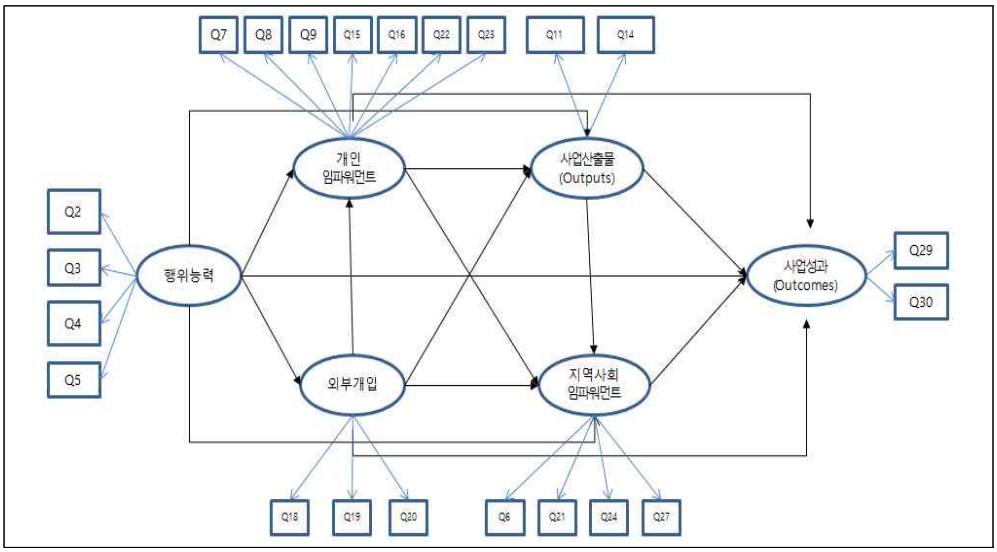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		문항수	x2	p	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행위능력	초기	5	19.091	.002	3.818	.044	.987	.960	.977	.970	.977	.073
	최종	4	6.223	.045	3.112	.032	.994	.970	.991	.987	.991	.063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초기	12	263.152	.000	4.965	.054	.923	.886	.905	.885	.906	.086
	최종	10	44.551	.000	5.228	.044	.937	.898	.926	.911	.926	.089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Outputs	초기	8	119.310	.000	6.279	.036	.951	.908	.905	.890	.905	.099
	최종	6	15.801	.045	1.975	.015	.991	.975	.990	.979	.990	.043

1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당초 연구분석틀에서 이론적으로 상정한 요인구성과는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크게 차이를 나타낸 부분은 원래 기회구조 요인을 구성하고 있던 변수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어떤 다른 요인들과도 묶여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산출물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성된 것이다. 기회구조 요인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기회구조에 대한 평가를 현지문화와 제도에 익숙한 주민들이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은 새마을리더 봉사단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하고 설문조사시 문항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활용정도, 새마을사업의 참여와 가치 이해, 여성의 참여율 증가 등이 하나의 새로운 요인으로 묶였는데 이는 시범사업의 단기적 결과물로 보아서 시업산출물(outputs)이라 명명하였다.

13) 사업성과 요인의 Cronbach α 값이 기준치인 0.6에 못미치는 0,526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진한 일부 마을(특히 탄자니아)이 포함되어 교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의 큰 흐름상 이를 제외할 경우 논리를 전개하기가 어려워 일단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최종 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최초 문항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14] 값을 이용하여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 시행한 결과 5개의 변수가 제거되었다.[15]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변수들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변수의 점수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변인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Unweighted least square(ULS)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hi 2$=675.869, df=194, p=0.000, CMIN/DF=3.484, GFI=0.893, AGFI=0.861, CFI=0.888, RMR=0.051, RMSEA=0.068, NFI=0.850, IFI=0.889로 나타났다. 변수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많은 지수들 중에서 $\chi 2$은 675.869(0.000)로 그 값이 높아 모델의 위험도가 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분석에서 GFI, CFI, IFI, RMSEA 값은 기준에 충족하고, AGFI, RMR 값은 기준에 근접하므로 모델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정된 연구모형을 본 연구의 경로분석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측정 연구모형

14) SMC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5) 즉 행위능력 요인에서는 과거의 마을개발에 관심도를 묻는 문항(Q1), 외부개입에서는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에 관한 문항(Q13)과 마을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에 관한 문항(Q17), 사업산출물(Outputs) 요인에서는 여성 참여에 관한 문항(Q12)이 그리고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요인에서는 주민조직 활동을 묻는 문항(Q25)이 제거되었다.

16) 각 적합도 지수의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GFI와 AGFI는 0~1 사이의 값을 취하고, 0.9 이상, CFI와 NFI, IFI는 0~1 사이의 값을 취하고 1에 가까울수록, RMR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일반적으로 0.05를 넘으면 좋지 않은 모델로 판단하고 RMSEA는 0.05보다 작을 때 좋다고 판단한다(노형진, 2011: 218-220).

2) 주요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표 6〉은 구성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업성과와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관계에서 0.4 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두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의 관계이고(0.649), 두 번째는 외부개입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0.565), 세 번째는 외부개입과 사업산출물(outputs)(0.528), 네 번째는 외부개입과 개인적 임파워먼트(0.521)의 관계이다.

〈표 6〉 임파워먼트 구성요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1. 행위능력	3.68	.917	1.00					
2. 외부개입	4.02	.739	.430**	1.00				
3. 개인적 임파워먼트	4.26	.690	.436**	.521**	1.00			
4.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4.37	.607	.445**	.565**	.649**	1.00		
5. 사업산출물(Outputs)	4.44	.599	.418**	.455**	.528**	.488**	1.00	
6. 사업성과	3.89	.872	.368**	.248**	.351**	.314**	.275**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3. 가설검정

1) 임파워먼트 모형

임파워먼트 요인들간의 경로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가설검정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분석 결과, 시범마을의 행위능력과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및 사업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은 경로계수가 양(+)의 값이 도출되었고(H1-2는 0.555, H1-3는 0.301, H1-5는 0.229), C.R. 값이 신뢰수준 99.9% 및 99%를 만족시키고 있어 채택되었다. 이는 시범마을의 행위능력이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및 사업성과에 직접적이며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행위능력과 산출물(outputs), 행위능력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어, 행위능력이 사업산출물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개입, 즉 새마을 시범사업의 시행이 다른 구성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가설에서 H3-3와 H3-4만 채택되어 외부개입은 개인적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산출물과 사업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임파워

먼트 요인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H4-1), 단기적 사업산출물(H4-2), 사업성과와의 관계(H4-3)에 대한 가설검정에서는 H4-3은 기각되어 개인적 임파워먼트 요인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사업산출물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산출물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H5-1) 및 사업성과의 관계(H5-2)에 관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어 단기적 사업산출물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사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H6)은 채택되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가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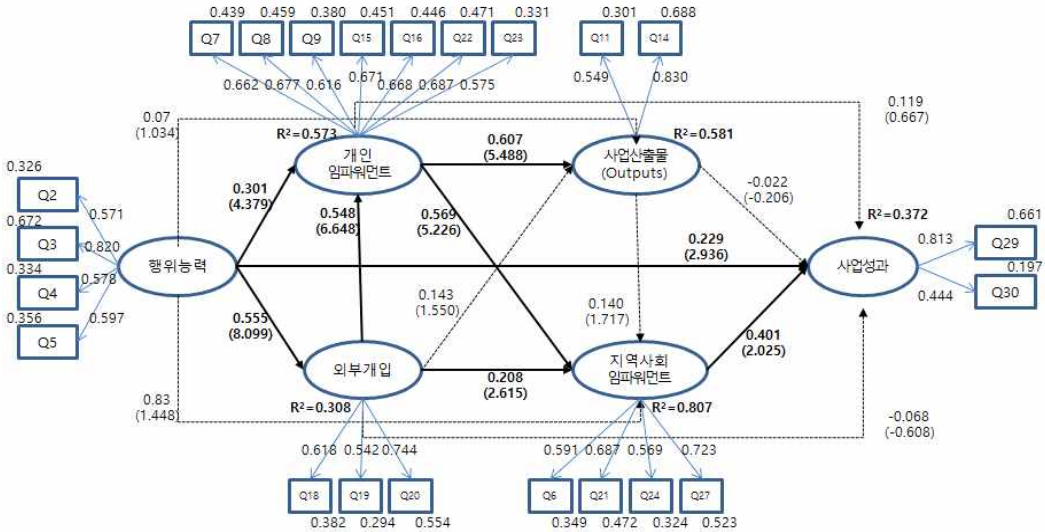
〈표 7〉 임파워먼트 모델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가설)	경로 계수	C.R.	p값	검정 결과
행위능력→외부개입 (H1-2)	.555	8.099	***	채택
행위능력→개인적 임파워먼트 (H1-3)	.301	4.379	***	채택
행위능력→지역사회 임파워먼트 (H1-4)	.083	1.448	.148	기각
행위능력→사업산출물(Outputs)	.070	1.034	.301	기각
행위능력→사업성과 (H1-5)	.229	2.936	.003**	채택
외부개입→개인적 임파워먼트 (H3-3)	.548	6.648	***	채택
외부개입→지역사회 임파워먼트 (H3-4)	.208	2.615	.009**	채택
외부개입→사업산출물(Outputs)	.143	1.550	.121	기각
외부개입→사업성과 (H3-5)	-.068	-.608	.543	기각
개인적 임파워먼트→지역사회 임파워먼트 (H4-1)	.569	5.226	***	채택
개인적 임파워먼트→사업산출물(Outputs) (H4-2)	.607	5.488	***	채택
개인적 임파워먼트→사업성과 (H4-3)	.119	.667	.505	기각
사업산출물(Outputs)→지역 사회임파워먼트 (H5-1)	.140	1.717	.086	기각
사업산출물(Outputs)→사업성과 (H5-2)	-.022	-.206	.837	기각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사업성과 (H6)	.401	2.025	.043*	채택
제안모델 적합도	χ2=521.979, df=185, p=0.000, CMIN/DF=2.822, GFI=0.919, AGFI=0.889, CFI=0.921, RMR=0.047, RMSEA=0.058, NFI=0.885, IFI=0.922			

*p〈0.05, **p〈0.01, ***p〈0.001

이를 종합하면 행위능력은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및 사업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산출물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위능력의 영향을 받은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사업산출물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행위능력의 영향을 받은 외부개입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산출물과 사업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외부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직접적으로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과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범마을의 행위능력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경로를 설계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이며, ( )는 C.R. 값을 나타낸다.

〈그림 3〉 제안모델의 추정 결과 및 경로분석

2) 구성요인 사이의 관계 분석

〈그림 3〉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구성요인들 사이에는 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직접적으로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다른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많다(예: 행위능력과 사업산출물, 행위능력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그리고 이 두 관계, 즉 인과관계와 매개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예: 행위능력과 개인적 임파워먼트). 아래 〈표 8〉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로계수를 직접효과(인과관계)와 간접효과(매개관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17]

먼저 행위능력은 나머지 다른 구성요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행위능력은 외부개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0.555). 즉 마을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며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며 네트워킹 하는 전통,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마을일수록 외부개입(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마을, 예컨대 외부지원에 대한 접근을 일부 기득권층이 독점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배제시켜 왔던 마을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접근의 제한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홍보가 어려

17) 직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나 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울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개발이라는 상향식 방법론의 적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접근한다면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의해 시범마을의 기존 질서와 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의 직접효과(0.301)와 간접효과(0.304)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범마을이 지니고 있던 행위능력(사회적 자본)이 시범사업(외부개입)을 통하여 발현되고, 이것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임파워먼트 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이 기존의 행위능력과 기회구조의 제약 속에서도 마을주민들의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경로계수 분석

구분	요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행위능력	외부개입	0.555	-	0.555
	개인적 임파워먼트	0.301	0.304	0.605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0.083	0.532	0.615
	사업산출물(Outputs)	0.070	0.446	0.517
	사업성과	0.229	0.270	0.499
외부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	0.548	-	0.548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0.208	0.378	0.587
	사업산출물(Outputs)	0.143	0.333	0.476
	사업성과	-0.068	0.290	0.222
개인적 임파워먼트	사업산출물(Outputs)	0.607	-	0.607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0.569	0.085	0.654
	사업성과	0.119	0.249	0.368
사업산출물(Outputs)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0.140	-	0.140
	사업성과	-0.022	0.056	0.034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사업성과	0.401	-	0.401

* 총효과(Total effect) = 직접효과 + 간접효과

행위능력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총효과가 0.615로 가장 크지만 직접효과(0.083) 보다 간접효과(0.532)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즉 행위능력은 외부개입과 개인적 임파워먼트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강화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첫째, 행위능력이 잘 갖추어진 마을의 경우 새마을 시범사업의 시행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 둘째, 반대의 경우 즉 행위능력이 다소 부족한 마을이더라도 새마을 시범사업(외부개입)이 잘 시행된다면 중간과정에 있는 임파워먼트 구성요인들의 강화를 통하여 좋은 시범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18]

18) 이 같은 사실은 행위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서도 임파워먼트와 사업성과가 매우 우수한 르완다의 무심바 마을과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도데 마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행위능력이 사업산출물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간접적 효과가 훨씬 크다. 이는 시범마을의 행위능력이 우수할 경우, 그것이 단기적 사업결과에는 직접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매개변수(외부 개입,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강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행위능력의 사업성과에 대한 직접적 효과(0.229)와 간접적 효과(0.270)는 비슷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개입 역시 직·간접적으로 각 구성변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부개입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0.587) 그 다음으로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큰 영향(0.548)을 미치고 있다. 이는 새마을 시범사업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적 및 개인적 임파워먼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업산출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0.476) 이는 새마을 시범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과 같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새마을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하여 주민 및 지역사회가 임파워먼트될 때 사업산출물에 대한 효과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19]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사업산출물 및 사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직접적으로 사업산출물에 가장 강한 영향력(0.607, 간접효과 없음)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력(0.654)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임파워먼트 될수록 사업산출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사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사업산출물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0.140, 사업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0.034로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즉, 새마을 시범사업 산출물은 다른 임파워먼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임파워먼트 구성요인들의 순환과정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은 그 자체로서 시범사업의 결과물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은 만족하고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

잘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낙영(2015: 236-240)을 참조할 것.

19) 그러면 과연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임파워먼트의 경로가 꼭 외부개입에서 개인적 임파워먼트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시범마을의 행위능력이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외부개입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개인적 임파워먼트에서 외부개입으로 출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계수를 계산하면 〈표 8〉의 계산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외부개입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하면 전체 효과가 0.598로 기존의 외부개입의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총효과 0.548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다른 요인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가 더욱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부개입과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자신감이나 자기결정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민들이 임파워링 될수록 시범사업 참여가 용이해지고 또한 시범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사업성과에 0.401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귀속감, 협동심, 발전의지 등이 강화될수록 새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V. 결론: 정책적 시사점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새마을 시범사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분석결과 행위능력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가 사업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분석에 의하면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가장 강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다른 구성요인을 거쳐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강화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했다. 이처럼 경로구조도만으로는 살펴볼 수 없는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계수와 경로계수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행위능력은 외부개입을 거쳐 주민들의 개인적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고, 강화된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다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킴으로써 사업성과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개입은 시범마을 주민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개인보다 집단적 임파워먼트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상북도의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은 비록 임파워먼트의 향상을 명시적 목표로 내 세우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0]

둘째, 행위능력은 외부개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간접적 영향이 더 강했다. 이는 그 마을의 행위능력이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시범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행위능력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주민들의 마을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 적극적인 참여, 신뢰와 협동의 전통, 주민조직 활성화 정도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그 증대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을 선정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기초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20) 이 같은 사실은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로도 확인되는데 임파워먼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5점 만점에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4.28,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4.32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국가별, 마을별 차이 등 분산분석 결과는 주낙영(2015)을 참조할 것.

으며 심지어 현지 유력 정치인의 업적과시용으로 추천된 마을을 그대로 선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임한성, 2014: 167). 앞으로는 수원국 정부와 현지 대사관, KOICA 사무소의 협조를 얻되 사업시행 주체인 경상북도가 보다 충분한 시간과 주도성을 가지고 행위능력과 그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상마을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이 선정되면 사업시행 전에 다각도의 사전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봉사단원을 파견해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의 신뢰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위능력이 다소 부족한 마을이라도 외부개입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른 매개 변수들의 강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그림 3〉의 경로구조도를 역순으로 따라가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업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행위능력과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이다. 행위능력에는 그 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에는 개인적 임파워먼트, 외부개입, 행위능력 등 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위능력이 다소 부족한 마을의 경우는 외부개입 즉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즉 주민들의 행위능력을 길러주고 개인적 및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21]

넷째, 사업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 시범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큰 임파워먼트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집단이 창출하는 힘의 본질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집단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다(Ramon, 1999: 41). 그런데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개인적 임파워먼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의 전제 조건이 되는 개인적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인 바,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요체는 효능감(efficacy)이기 때문에 개인적 효능감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실 효능감이 부족하면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이 결여되고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Pigg, 2002: 112).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감(sense of control)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단순한 주입식 집합 강의보다는 'learning by doing' 방식의 맞춤형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성공체험의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새마을운동 방식과 일반 해외원조사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 주민들의 교육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에 금전적 수입이나 생활의 편리함 등 실제 자기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가시적 효과가 큰 사업

21) 행위능력이 부족했던 르완다의 무심바 마을이 큰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리더 봉사단원과 현자 마을지도자의 남다른 헌신과 열정, 그리고 벼농사 협동조합이라는 남다른 사업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주낙영, 2015: 213, 239-240).

을 선정하여 의식개혁 교육과 함께 병행해서 실시할 때 개인적 임파워먼트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새마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상된 개인적 임파워먼트가 사업성과 향상에는 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마을의 의사결정을 일부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면서 지대추구의 기회로 활용하는 구조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심리적인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직도 아프리카의 많은 주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원조의존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원조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기회로만 생각할 뿐 마을의 공동발전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태도이다. 따라서 새마을 사업에의 참여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일이고 공동체의 발전이 곧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과 공동체 정신 함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의 건립으로 대표되는 사업산출물(outputs)이 정작 사업성과(outcomes)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마을회관의 효과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마을회관이 건립 자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모와 용도의 재검토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접근법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한 최초의 논문이기 때문에 시론으로서의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은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각 기관 단체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추진에 많은 정책적 시사를 주고 있다. 제한된 예산과 여건 아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명시적 목적으로 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노형진. (2011).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소진광. (2007).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93-112.

소진광·김선희. (2011).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용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손혁상·장지순. (2011). 새마을운동의 국제개발협력사업화 현황 분석과 대안적 접근 모색: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의 접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87-110.

오남현. (2012). 사회적 자본과 도시지역 새마을운동과의 영향분석. 「도시행정학보」. 25(3): 89-110.

오남현·최외출. (2009). 사회적 자본과 농촌지역 새마을운동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비교행정학보」. 13(1): 113-130.

윤석원. (2014).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 토론자료. 경실련.

이금순 외. (2008). 「국제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이진우. (2015). 새마을운동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 10. 2. A31.

이종수. (2010). 우리나라와 몽골새마을운동 거버넌스 -ODA와 새마을운동의 거버넌스 접근.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개발연구」. 제6권: 143-184.

이태주. (2013).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44차 ODA토크: 새마을운동 ODA,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발제문.

이현정. (2014).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역동성 비교연구. 오유석 엮음.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서울: 한울.

임경수. (201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운동. 「지방행정연구」. 제26권 통권 90호.

임한성. (2010).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전수사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구논총」. 3(1): 101-212.

_____. (2011).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경운대학교.

_____. (2013).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_____. (2014).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연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주낙영. (2015). 「임파워먼트가 인식차원의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최영출. (2008).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과 평가. 「한국새마을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30-43.

홍기용 등. (2013).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KOICA. World Friends Korea.

Alsop, Ruth. et al. (2006). *Empowerment in Practice: From Analysis to Implement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Cornwall, A. and Brock, K. (2005). Beyond Buzzwords: "Poverty Reduction",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Development Policy. Ov*erarching Concerns Programme*

Paper Number 10.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Hur, M. H. (2006). Empowerment in Term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Exploring a Typology of the Process and Components across Disciplin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5): 523-540.

Kabeer, N. (2001). Reflections on the Measurment of Women's Empowerment. In (ed.) Sisaska, Anne. *Discussing Women's Empowerment: Theory and Practice*. Sida Studies. No. 3. Novum Grafiska AB: Stockholm: 17-57.

Kasmel, Anu. (2011). Community Empowermen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www.salutare.ee/.../Community%20empowerment%20-%20theoretical%20considerations.doc)

Kieffer, C. (1984). Citizen Empowerm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eds.) J. Rapparport, C. Swift and R. Hess. *Studies in Empowerment: Steps toward Understanding and Action*. Binghamton: The Harworth Press: 9-36.

Laverack, G. and Wallerstein, N. (2001). Measuring Community Empowerment: a Flesh Look at Organizational Domain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6(2): 179-185.

Lord, J. & Hutchison, P. (1993). The Process of Empowerme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2(1): 5-22.

Luttrel, C. et al. (2009). *Understanding and Operationalising Empowerment*. ODI Working Pater 308. Overseas Development Agency. London, UK.

Narayan, D. (ed.) (2002). *Empowerment and Poverty Reduction: A Source book* .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_____. (ed.) (2005). *Measuring Empowerment: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age, N., & Czuba, C. (1999). Empowerment: What Is It?. *Journal of Extention*. 37(5): 485-491.

Parpart, L. et al. (2003). 「Rethinking empowerment: Gender and development in a global/local world」. New York: Routledge.

Perkins, D. & Zimmerman,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569-578.

Pigg, K. E. (2002). Three Faces of Empowerment: Expanding the Theory of Empowerment i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3(2): 107-123.

Rappaport. J. (1987). Terms of Empowerment/Examplar of Prevention: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2): 121-147.

Ramon, S. (1999). Collective Empowerment: Conceptual and Practice Issues. In Shera and Wells(eds.).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Developing Richer Conceptual Foundation*.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Inc.

Wallerstein, N. (1992), Powerlessness, Empowerment and Health: Im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6: 197-205.

Wilson, P. (1996). Empowerment: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Inside Out. *Urban Studies*. 33(4-5): 617-630.

World Bank. (2002).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Washington: World Bank.

Zen, A. (2007). *Evaluating Empowerment*. The World Vision Area Development Programme. (http://www.digitalhimalaya.com/collections/journals/opsa/pdf/OPSA_08_10.pdf)

Zimmerman, M. A. (1984). Taking Aim on Empowerment Research: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Concep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169-177.

Zimmerman, M. et al., (1993). *Further Explorations in Empowerment Theory: An Empirical Analysis of Psychology*. PCMA Working Paper Series #39. The University of Michigan.

접수일(2016년 02월 22일)
수정일자(2016년 04월 05일)
게재확정일(2016년 04월 19일)